

시편과 고난받는 성도: 멜란히톤의 시편 주석을 통해 본 성도의 고난

류성민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외래교수, 조직신학)

- I. 서론
- II. 멜란히톤과 교회의 고난
- III. 시편에 나타난 고난의 삶
- IV. 개인과 교회와 그리스도의 고난의 관계
- V. 교회의 고난의 원인
- VI. 고난은 성도들에게 주는 효과
- VII. 결론

[초록]

종교개혁자들은 교회의 활동에 실천적 관심이 많았다. 이는 시편에 드러난 고난의 문제에서 잘 볼 수 있다. 멜란히톤의 시편 주석 또한 성도의 고난과 고통의 문제를 잘 다루고 있다. 멜란히톤은 시편에서 고난 받는 교회와 보존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한다. 이것은 슈말칼덴 전쟁의 비극적 상황과 긴밀하게 연관된다. 이 전쟁에서 개신교 진영은 패배했다. 개신교회가 사라질 수도 있는 실재적 위기 가운데, 멜란히톤은 시편을 비텐베르크 대학에서 강의했다. 그는 이 시편 강의를 통해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발견하고 전했다. 교회는 하나님의 소유이지만, 그렇다고 교회에 고난이 없지 않다. 오히려 교회가 당하는 현실적 고난은 상당히 크다. 멜란히톤은 시편에서 교회의 고난을 발견하고, 그 원인과 목적 또한 발견한다. 교회의 고난의 원인 중 하나는 성도의 죄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 교회가 사용하는 방어 수단은 학문과 가르침이다. 더 나아가 교회의 고난의 궁극적 원인은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를 통해 하나님은 교회가 죄를 알기를 원하셨다. 다만 고난은 교회를 없애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회개를 위한 교훈적 목적으로 존재한다. 이런 방식으로 고난은 성도를 부르짖음과 간구로 나아가게 만든다. 그리고 하나님은 교회의 간구에 응답하신다. 그러므로 교회가 비록 큰 고난을 경험한다 하더라도 교회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해야 한다. 멜란히톤은 이것이 시편이 주는 교훈이라고 말한다.

키워드: 멜란히톤, 비텐베르크, 슈말칼덴 전쟁, 교회의 고난, 시편, 기도

논문투고일 2024.01.22. / 심사완료일 2024.02.26. / 게재확정일 2024.03.05.

1. 서론

종교개혁 신학을 논하면 무엇이 옳고, 그른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 즉 진리를 위한 다툼의 역사에 집중하곤 한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바른 진리를 위한 싸움은 단순한 이론적 논쟁이 아니었다. 오히려 그런 다툼의 이면에는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로서 삶에 대한 깊은 관심이라는 중요한 문제가 항상 존재했다. 고난을 대하는 개혁자들의 견해도 마찬가지이다. 그들에게 고난이란 오염된 교리를 가진 로마 가톨릭으로부터 참된 교회를 지켜내기 위한 진리의 투쟁으로 발생하는 필연적 결과였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에 대한 개혁자들의 입장은 그들의 개인적 삶의 여정보다는 진리를 지키고자 하는 교회의 활동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고난과 그로 인한 고통에 대한 논의는 개인적 종교심이 아니라, 성경의 참된 교훈을 교회에서 지켜내고 바르게 구현하려는 교회의 노력이라는 관점에서 논의가 되었다. 현대에는 고난과 고통의 문제를 개인의 삶에서 경험되는 심리적 요소에 관심이 있다면, 종교개혁자들은 신자의 구체적인 삶과 구원에 자신의 신학적 초점을 맞추었다. 이것은 필연적으로 신자의 삶에 반드시 존재하는 고난에 대한 고찰로 이어졌다.

개혁자들은 이러한 실제적이며 실천적 관심을 성경에서도 동일하게 발견했다. 그들이 관심 있게 살펴본 성경으로 시편을 꼽을 수 있다.¹ 시편은 사람의 감성을 가장 함축적이면서 풍성하게 담고 있는 ‘시’라는 장르를 통해 종교적 감성을 전달하고 있다. 개혁자들은 시편이 주는 종교적 감성과 실천적 의미를 고찰하고, 사랑했고, 자신들에게 적용했다. 특히 시편에 등장하는 고난의 문제는 개혁자들에게 매우 실제적인 문제였다. 특히 종교개혁에서 하나님의 참된 교회, 즉 개신교회가 진리를 반대하는 교황을 비롯한 로마 가톨릭과 가톨릭 정치 세력을 통해 받는 심각한 고난의 문제는 현실적이며 사실적 문제였다.

* 본 논문은 고신대 개혁주의학술원에서 주최한 제18회 종교개혁기념학술세미나에서 발표되었으며 갠신과 부흥 33호에 투고하기 위해 약간 수정되었다.

1 시편은 초대 교회와 중세 교회에서도 가장 사랑받는 성경이었다. 초대와 중세의 시편 사용에 대한 연구는 다음을 참고 할 수 있다. Magne Sæbø ed., *HBOT. I/1: Antiquity* (Göttingen: V&R, 1996)와 Magne Sæbø ed., *HBOT. I/2: The Middle Ages* (Göttingen: V&R, 2000).

시편은 그런 점에서 종교개혁자들에게 매우 실천적 교훈을 전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멜란히톤은 루터와 함께 비텐베르크 종교개혁을 이끌었던 대표적인 1세대 종교개혁자이다. 흔히 ‘루터파의 2인자’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루터파라는 분파로 1세대 개혁자를 분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² 오히려 그의 신학은 루터의 성만찬 교리와 1580년 일치문서(Konkordienbuch, 1580)로 표현할 수 있는 루터파 신학과 달리 개혁파 신학과 일치한다.³ 특히 1560년 팔츠 선제후 프리드리히 3세(Friedrich III., 1515-1576)는 개혁파 종교개혁을 도입하려고 할 때 멜란히톤의 평가서의 도움을 받았던 것은 중요한 이야기이다.⁴ 더하여 1563년 발간된 하이델베르크요리문답의 주요 저자로 알려진 우르시누스가 멜란히톤의 제자라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⁵

멜란히톤은 1546년 발발한 슈말칼덴 전쟁에서 개신교 진영이 패배한 이후 개신교 진영과 교회가 커다란 위기 가운데 있을 당시 1548년 전쟁으로 닫혔던 비텐베르크 대학을 다시 열면서 시편을 강의하기 시작했다.⁶ 멜란히톤은 교회의

2 대표적인 개혁파 신학자인 바빙크도 멜란히톤을 루터파 신학자로 분류했다. 그러나 이 분류는 당대 잘못된 이해에 기인한 것이다. 현대에는 그나마 균형잡힌 평가가 생겨나고 있다. 이에 대해 참고. 류성민, “바빙크의 멜란히톤 이해에 대한 비판적 고찰”, 『한국개혁신학』 2017(56), 119-146.

3 성만찬 교리에 더하여 예절문에서도 멜란히톤과 개혁파 신학의 공통점은 분명하게 발견된다. 참고. Theodor Mahlmann, “Melanchthon als Vorläufer des Wittenberger Kryptocalvinismus,” in Günter Frank und Herman J. Selderhuis hg., *Melanchthon und der Calvinismus* (Stuttgart-Bad Cannstatt: frommann-holzboog, 2005), 173-230. (Melanchthon-Schriften der Stadt Bretten, 9)

4 MBW 9119: CR 9, 961-966. Nr 6861B.; MSA 6, 484-486); 참고. 이남규, 『우르시누스&올레비아누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서의 두 거장』 (서울: 익투스 2017), 118-119; 안인섭, “팔츠(Pfalz)의 개혁파 종교개혁의 발전(1558-1561): 멜란히톤과 칼빈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한국개혁신학』 2021(71), 227-268.

5 이남규, 『우르시누스&올레비아누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서의 두 거장』, 52-53.

6 멜란히톤의 시편 주석(*Commentarii in Psalmos*)(이후 시편 주석은 PK로 인용하고 뒷 숫자는 시편의 편수임)은 *Corpus Reformatorum: Philippi Melancthonis opera quae supersunt omnia*, eds. Carl Gottlieb Bretschneider and Heinrich Ernst Bindseil (Halle, Braunschweig, 1834-1860), vol. 13, 1017-1244(이후 CR 13으로 인용함)에 있다. 멜란히톤의 시편 주석은 서문(이후 ProI으로 인용함), 시편 1-60편, 110-133편 그리고 개별 시편들(시편 51편, 31편, 34편, 이후 Ps 51z, Ps 31z, Ps 34z로 인용함)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 110-133편의 주석은 불가타(Vulgata) 성경을 기초로 주해한다. 그러나 편집자는 이를 히브리 성경의 순서에

고난이 매우 심각하고, 고통이 엄청나게 큰 그 상황에서 시편을 통해 하나님의 메시지를 발견하고, 이를 교회와 성도들에게 전하고자 했다. 본고는 비텐베르크 개혁자 멜란히톤의 시편 주석을 통해 성도의 고난과 고통에 대한 이해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한국 교회에 유익이 무엇이 있을지 살펴보려고 한다.

II. 멜란히톤과 교회의 고난

1. 멜란히톤의 시편 주석에 나타난 고난

멜란히톤은 시편 전반에서 성도의 고난의 삶을 발견한다. 그의 시편 해설에서 성도의 고난의 문제는 거의 모든 시편에서 다루어지기 때문에 시편 해설의 첫 부분의 일부만 살펴보는 것만으로 그가 성도의 고난의 문제에 얼마나 관심이 많았는가를 알 수 있다.

우선 시편 서론이다. 멜란히톤은 에베소서 4장의 말씀을 기초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보존하신다는 문장으로 자신의 시편 해설을 시작한다. 하늘의 교훈의 빛(*lux doctrinae coelestis*)과 하나님을 향한 참된 부르짖음과 바른 예배가 사라지지 않고, 온 인류가 어두움과 오류와 영원한 사망 가운데 사라지지 않도록 하나님은 선지자와 목사와 교사(*Doctores*)라는 교회의 직임을 보존하신다.⁷ 멜란히톤에게 교회가 처한 현실은 위태로운 것이었다. 교회뿐만 아니라 온 인류를 파괴하고 사라지게 하려는 시도가 있었고, 하나님은 그 상황에서 교회를 보존하신다. 하나님은 각 시대마다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어 증거

따라 배열을 하였다. 그래서 시편 114편과 115편의 일부가 나뉘지고, 117편과 118편의 일부가 나뉘진다. (이것은 이후 PK 114/115와 Ps 117/118으로 인용함) 저자의 학위 논문이 이 주제를 다루었다. 류성민, 『교회의 가장 달콤한 노래 시편. 멜란히톤의 시편 주석의 주해와 신학』 (부산: 개혁주의학술원, 2023).

⁷ PK Prol, CR 13, 1017. “Ad Ephesios quarto scribitur, divinitus servari ministerium doctrinae coelestis, et subinde excitari Prophetas, Pastores et Doctores, ne lux doctrinae coelestis, vera invocatio Dei, et veri cultus extinguantur, et totum genus humanum ruat in tenebras, errores et aeternum exitium.”

를 만드시고, 교훈을 가르치셨고, 위선자들의 견해를 반대하여 법과 약속을 해석하도록 하시고, 참된 해석의 증인들이 되도록 하셨다. 그렇게 시편은 교회를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증거(*miracula testimonia*)가 되었다.⁸

멜란히톤은 시편이라는 놀라운 증거들에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한다. 그는 이를 하나님의 교훈이라고 표현했고, 그것의 구체적인 내용을 교회의 보편 교리인 법과 복음(*in ... legem et Evangelium*)으로 분류한다.⁹ 그리고 시편 또한 법의 교훈과 복음의 약속이라는 내용으로 나눌 수 있다고 설명하며, 각 시편의 해설에서 이 분류를 사용하여 시편을 설명한다.

멜란히톤이 시편에서 발견하는 교회의 삶이란 단조롭고 평탄하지 않다. 교회는 자신을 대적하는 세상 가운데 던져져 있다. 그래서 교회의 삶은 복잡하고 굴곡진 고난의 연속이다. 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교훈은 교회가 마땅히 행해야 하는 법과 교회를 지키며 보호하시는 복음이라는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가득 차 있고, 이것은 혼란스러운 현실의 삶에서도 교회를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증거들이 된다. 교회에게 고난이란 특별한 일이 아니다. 그러나 교회에게 고난이 익숙한 일도 아니다. 고난이 주는 고통은 항상 끔찍하고 두렵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전은 우리를 놀랍게 한다. 하나님은 교회의 선조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의 상황에서도 자기 교회를 버리지 않고 지키시는 것을 그림과 같은 예로 보여주셨다. 성경, 특히 시편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보전을 경험하는 주요한 증거들이다.

이어지는 시편 1편부터 3편의 해설에서도 고난은 주요한 주제로 다루어진다. 멜란히톤은 시편 1편이 전체 시편의 서문과 같다고 설명하면서, 교회가 큰 고난 가운데 헛된 수고와 위험을 겪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헛된 것이 아니라, 반드시 교회에 꽃이 필 것이고, 이단들은 망할 것이라고 해설한다.¹⁰ 이어 시편 2편을 메시아의 오심에 대한 예언이라고 규정하며, 메시아의 오심의 의미를 우선 복음의 대적자들을 향한 꾸지람과 위협으로 설명하고 이어 메시아

⁸ PK Prol, CR 13, 1017.

⁹ PK Prol, CR 13, 1018. “Ut universa doctrina Ecclesiae in duas partes distribuitur, videlicet legem et Evangelium, ita discernantur et Psalmi: ”

¹⁰ PK 1, CR 13, 1019.

의 존재와 그의 나라에 대한 내용으로 설명한다. 특히 멜란히톤은 이러한 믿음에 대한 참된 교훈이 부르짖음의 참된 훈련 가운데 강조되어야 하고, 가르쳐져야 한다고 지적한다.¹¹ 시편 3편의 해설 시작은 하나님의 교회에 속한 그리스도와 다른 구성원들 가운데 존재하는 고난과 다툼과 간구에 대한 언급이다.¹²

이후의 시편 해설들도 마찬가지로 성도의 고난에 대한 내용으로 가득 차 있다. 특히 시편 44편의 해설은 멜란히톤이 시편을 어떻게 교회와 연관시키는지 잘 보여준다.

이 시편은 모든 시대 교회의 모형이다. 그래서 (이 시편은) 우선 역사적 설명을 포함한다. 교회가 어디에 있는지, 누가 교회를 모으는지, 분명 하나님께서 (모으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들이 어떻게 다른 백성들로부터 구분되는지에 대한 교리를 보여준다. 그리고 교회는 확실하고 유일한 규범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분명히 말씀의 보호자가 되기 위한 목적 때문이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셨다. 왜냐하면 이 백성이 가질 미래의 지위는 세상 나라들의 지위와 다를 것이기 때문이다. 세상 나라들은 잔인하게 교회를 침략할 것이지만, 하나님은 계속하여 영원토록 자신의 집단과 복음의 전파를 보호하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고난 가운데 고백과 부르짖음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비추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이다. 이 모든 것을 교회가 알아야 한다. 그 집단이 무엇인지, 어떻게 모이는지, 무엇을 행하기 위해 부름 받았는지, 어떤 위험이 있고, 도움이 있고, 마지막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왜냐하면 경건한 사람들은 이것을 알지 못한다면, 고난을 견딜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역사적 기억이 제시된다, 이는 또한 간구의 이유들을 담고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교회를 보존하기를 원하신다, 왜냐하면 자신이 교회를 선택하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그리고 다시 교회가 그를 찬양하고 참으로 부르짖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인류로부터 아들에게 상속자를 모으기를 원하셨다. 그는 아들을 통해 이 상속자를 구속하신다. 그를 다스리고 놀라운 방식으로 보호하며, 보존하신다.¹³

11 PK 2, CR 13, 1021. "Sed Prophetiae inculcarunt veram de fide doctrinam, et 16 postea Christus et Apostoli. Et haec discenda est in veris exercitiis invocationis."

12 PK 3, CR 13, 1021. "Similes sunt, in Christo et caeteris membris Ecclesiae Dei afflictiones, agnoes et precatones, etsi in Christo antecellunt."

2. 멜란히톤의 시편 강의와 역사적 맥락

멜란히톤의 시편 해석은 역사적 맥락을 가지고 있다. 사실 개인의 성경 해석은 그의 신앙 경험과 처한 상황적 맥락과 관계되어 있다. 멜란히톤도 예외는 아니다. 물론 그가 성경을 이해함에 있어 상황적 해석을 한다고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지만, 성경이 교회가 처한 상황에 적절한 의미를 부여하고, 자신의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현재적 계시라는 이해는 멜란히톤에게 자연스럽게 나온 것이었다.

멜란히톤의 시편 주석은 주로 1548년에서 1551년 사이에 이루어진 비텐베르크 대학의 강의에서 기반한다. 편집된 시편 주석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는데, 첫 번째 부분은 시편 1편에서 60편까지, 두 번째 부분은 시편 110편부터 133편까지, 세 번째 부분은 개별 시편 해설들이다. 이 시기는 독일 개신교회와 비텐베르크와 멜란히톤에게 매우 역동적이며 중요한 시기였다. 우선 1546년 2월 위대한 종교개혁자 루터가 사망했다. 그리고 그로 인한 슬픔이 채 가시기 전, 독일 제국의 황제 칼 5세(Karl V., 1500-1558, 제위 1519-1556)는 독일의 종교 문제를 군사적으로 해결하기로 결정하고 같은 해 7월 슈말칼텐 동맹(Schmalkandischer Bund)에 전쟁을 선언했다.¹⁴

13 PK 44, CR 13, 1089f. “Hic Psalmus imago est Ecclesiae omnium temporum. Ideo primum continet historicam narrationem, quae est doctrina ostendens unde sit Ecclesia, a quo collecta sit, videlicet a Deo, et quod sit Dei peculiaris populus, seiunctus a caeteris gentibus: Quodque certum et singulare munus habeat, scilicet ut sit custos verbi, quo se patefecit Deus, quod sit dissimilis status futurus huius populi et imperiorum mundi: quod imperia mundi crudeliter grassatura sint in Ecclesiam, sed tamen Deum servaturum esse semper aliquem suum coetum custodem et propagatorem Evangelii: et quod velit in his afflictionibus lucere fidem nostram in confessione et invocatione. Haec omnia scire Ecclesiam necesse est, quid sit, qualis coetus sit, ad quod munus vocata sit, quae sit habitura pericula, quae auxilia, quos exitus. Nam pii non possent perferre aerumnas, si haec nescirent. Ideo historica commemoratio proponitur, quae quidem et causas petitionis continet. Ideo enim Deus Ecclesiam vult servare, quia ipse eam elegit et diligit, et vicissim Ecclesia eum celebrat et vere invocat. Voluit Deus ex genere humano colligere haereditatem Filio. Hanc redimit per Filium hanc regit, et mirabilibus modis defendit et servat.”

전쟁 초기의 주요 인물은 황제와 작센의 선제후 요한 프리드리히(der Kurfürst von Sachsen, Johann Friedrich I., der Großmütige, 1503-1554)였다. 그들은 도나우(Donau) 강변에서 서로 전투를 펼쳤다. 그 와중에 황제의 편에 서기로 결정한 작센 공작 모리츠(Herzog Moritz von Sachsen, 1521-1553)가 전쟁에 개입했다. 그는 신앙고백에 있어서 개신교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이 전쟁에서는 정치적 이유로 로마 가톨릭을 지지하는 황제의 편에 섰다. 황제가 그에게 전쟁에서 자신의 편에 선 대가로 여러 가지를 약속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황제는 모리츠에게 선제후위(Kurwürde)와 영토의 확장을 약속했다. 모리츠는 황제와 약속 하에 비어있던 비텐베르크를 공격했고, 프리드리히는 군사를 뒤로 물릴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1547년 4월 24일 황제는 엘베 강변의 뮐베르크(Mühlberg an der Elbe)의 로카우어 하이데(Lochauer Heide) 전투에서 작센의 선제후에 대한 승리를 거두었다. 전쟁의 패배 이후 프리드리히는 선제후위를 내려놓고, 자신의 영토의 많은 부분을 포기해야 했다. 결국 1547년 6월 6일 종교개혁의 중심지, 비텐베르크가 작센의 모리츠에게 넘어갔다. 이를 통해 개신교 진영의 정치세력은 심각하게 축소되었다.¹⁵

전쟁의 패배는 비텐베르크 대학까지 영향을 주었다. 우선 비텐베르크 대학은 존폐의 갈림길에 놓였다. 새로운 주인인 모리츠가 이미 라이프치히 대학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모리츠는 비텐베르크 대학의 유지를 결정했고, 멜란히톤은 대학을 떠나지 않기로 했다. 또한 슈말칼덴 전쟁의 결과를 정리하기 위해 아우크스부르크(Augsburg) 제국회의가 1547년 9월에서 1548년 6월까지

14 슈말칼덴 전쟁 과정에 대한 대략적 이해를 위해서 다음을 참고. Hubert Kirchner und Gert Haendler, *Reformationsgeschichte von 1532 - 1555/1566. Festigung der Reformation, Calvin, katholische Reform und Konzil von Trient* (Berlin: Evang. Verl.-Anst. 1987) (Spätes Mittelalter, Reformation, konfessionelles Zeitalter, 6), 89-93; Heinz Scheible, *Melanchthon. Vermittler der Reformation: eine Biographie*. Neuausgabe, umfassend bearbeitet und erweitert (München: C.H. Beck, 2016), 208-211.

15 슈말칼덴 전쟁과 이후에 발생한 개신교 진영의 일련의 사건들에 대하여 참고. 류성민, 『교회의 가장 달콤한 노래 시편. 멜란히톤의 시편 주석의 주해와 신학』, 39-44; Irene Dingel, 류성민 역, 『종교개혁, 인물과 중심지를 따라 읽다』 (서울: 영음사, 2022), 324-342.

지 열렸다. 황제는 제국 전체에 적용되는 종교법을 원했지만, 가톨릭 진영의 반대로 개신교 진영에만 적용되는 종교법이 공포되었다. 이것이 바로 “아우크스부르크 임시령”(Augsburger Interim)이었다. 모리츠는 이 법을 자신의 영지에 도입하는 것을 연기, 거부했고, 이를 위해 신학자들에게 협상안 작성을 요구했다. 그 결과로 발생한 중간 문서가 소위 “라이프치히 임시령”(Leipziger Interim)이고, 이를 통해 “아디아포라”(Adiaphora) 논쟁이 발생했다. 황제는 여러 방식으로 자신의 권력을 키워가려는 시도를 계속했고, 이것은 가톨릭 진영의 제후들에게도 불만을 만들어냈다. 일련의 과정에 불만을 가지고 있던 모리츠는 결국 1552년 황제를 대항하여 전쟁을 일으켰다. 이 전쟁이 “제후전쟁”(Fürstenkrieg)이다. 황제는 가톨릭 제후의 외면 가운데 결국 모리츠에게 패배하고 파사우 조약(Passauer Frieden)을 맺게 되었고, “아우크스부르크 임시령”은 힘을 잃게 되었다. 이 흐름은 1555년 아우크스부르크 종교평화(der Augsburger Religionsfrieden)로 이어지며 개신교회는 제국의 공식 종교로 인정받았다.

멜란히톤은 1548년에서 1551년 사이 개신교의 정치적 종교적 위기의 한 복판에서 시편을 강의했다. 특히 슈말칼덴 전쟁의 패배로 인해 개신교 정치 지도자들이 사로잡히고, 교회가 무너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팽배했다. 전쟁으로 인해 닫혔던 비텐베르크 대학이 1548년 10월 말 다시 열리고, 멜란히톤은 위기 가운데 있는 교회와 대학을 위한 강의로 시편을 선택했다. 멜란히톤은 이런 정치적 종교적 배경에서 교회와 대학과 정치 지도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시편에서 찾았다.¹⁶

전술한 바와 같이 당시 개신교회는 사느냐 죽느냐의 위기 앞에 있었고, 상황은 매우 위태롭게 보였다. 개신교회는 우상 숭배로 가득한 로마 교회로부터 참 교회의 명맥을 잇기 위해 노력하였는데, 정작 현실적 정치적 상황은 개신교를 향하여 매우 부정적이었다. 멜란히톤은 이렇게 고난이 가득한 교회와 성도의 삶에 대해 그들이 좌절하지 않기를 바랐다. 오히려 그는 우리가 이 고난들

16 멜란히톤 시편 주석 본문의 전승에 대해 다음을 참고. 류성민, 『교회의 가장 달콤한 노래 시편』, 44-51.

가운데 큰 달콤함과 우아함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고 말한다.¹⁷ 교회가 큰 곤란에 빠졌던 것은 비단 현재만의 일이 아니었다. 교회의 교사요 선조인 다윗 또한 고난의 삶을 살았다. 심지어 다윗의 삶의 전체 여정은 고난으로 이름 지을 수 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고난 가운데 자기 백성에게 나타나는 증거를 주셨다.¹⁸ 멜란히톤이 기대한 것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이었다. 위기와 고난은 성도에게 항상 있는 것이지만, 그것이 성도가 버림받았다는 의미는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는 일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멜란히톤은 시편에서 이런 메시지를 발견했고, 당시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를 전하고자 했다.

III. 시편에 나타난 고난의 삶

교회는 하나님의 소유이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특별한 집단이다. 또한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지으신 분이시고,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그런 점에서 교회와 성도에게 고난이 존재한다는 것은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다. 사실 성도들도 이해하기 어렵고, 더하여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나 이론적 예상과 현실은 모순된다. 고난은 교회에게 특별한 일이 아니다. 심지어 멜란히톤은 교회가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은 고난을 받는 집단이라고 단언한다. 이렇게 보면 교회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다행히도 그것이 끝은 아니다. 하나님은 고난 받는 교회를 영광스럽게 하고, 자유롭게 하며, 다스릴 것이다.¹⁹

그러나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결국 교회를 구원하시겠지만, 그렇다고 교회가 당하는 현실적 고난은 결코 가볍지 않다. 멜란히톤은 시편 13편에서 엄청난

17 PK 110, 3, CR 13, 1152. “quod cum fit magnam dulcedinem et eloquentiam in his carminibus esse intelligemus.”

18 PK 132, CR 13, 1219. “quod totum curriculum Davidis nominat afflictiones, in quibus Deus testimonium praebeuit patefactionum suarum in isto populo.”

19 PK 14, CR 13, 1038.

슬픔을 발견한다. 교회가 당하는 현실은 하나님께서 즉각 돕지 않으신다는 것이다. 모든 사람이 큰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자유케 하심이 늦어지고 막히는 것으로 인해 영혼이 지치고 시험을 받고 있다.²⁰ 이런 경험은 비단 시편 저자에게 국한된 것은 아니다. 멜란히톤의 교회가 당하고 있는 현실이었다.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교회는 영광스러운 모습과 동떨어져 심지어 불쌍해 보이기까지 한다. 이 때문에 발생하는 의문에 대한 답을 멜란히톤은 시편 16편의 해설에서 제공한다. 고난은 교회를 괴롭히기 위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고난은 교회를 위한 목적이 있다. 마귀가 당하는 영원한 고통은 해로운 일인 반면, 그리스도의 고난은 매우 유용한 것이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알고 그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그의 고난은 구원을 낳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의 고난은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교회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한 가치가 있다.²¹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교회는 그리스도의 고난을 즐거워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²² 이렇게 그리스도의 고난은 교회가 받을 영광과 긴밀한 관계를 가진다. 이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향한 교회의 찬양과 예배로 이어진다. 물론 직접적으로 시편 16편 본문이 다루는 고난은 그리스도의 고난이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고난은 교회의 고난을 보여주는 모형이기도 하다. 시편 22편에서 멜란히톤은 이 부분을 잘 설명하고 있다. 그는 이 시편이 성도가 아주 큰 고난과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자유를 구하는 기도라고 설명한다. 이 시편은 매우 슬픈 감성을 드러내고 있다. 저자는 자신의 고난을 조상들의 고난과 비교하며, 자신의 고난이 크다고 불평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어지는 자유에 대한 감사가 뒤따르고 있다. 왜냐하면 시편 저자는 고난과 자유가 그리스도의 고난과 승리의 형상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²³ 이처럼 교회

²⁰ PK 13, CR 13, 1036. "Exordium est querela valde tristis, qua deplorat differri auxilium et liberationem. Sicut omnes experimur in magno dolore et veris aerumnis, languiefieri animos mora, cum non statim opitulatur Deus."

²¹ PK 16, CR 13, 1041.

²² PK 16, CR 13, 1042.

²³ PK 22, CR 13, 1049. "Precatio est petentis liberationem in maximis aerumnis, et in morte, et habet tristia pa,qh, quibus confert suas afflictiones cum patrum

의 삶은 고난의 연속이다. 그리고 고난은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도 큰일이었다.

IV. 개인과 교회와 그리스도의 고난의 관계

멜란히톤은 시편이 시편 저자의 고난과 관련되어 있고, 이 고난은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고난과 깊게 연결되어 있고, 더하여 시편 저자를 포함한 교회 구성원 전체의 고난으로 확대하여 이해된다. 우선 시편 저자의 고통과 고난은 저자 개인만의 것이 아니다. 시편의 저자인 다윗이 고통을 어떻게 견디는지, 어떤 방식으로 자신을 위로하는지 기록하고 있다. 멜란히톤에 따르면, 이 기록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것이다. 교회에 속한 어떤 사람들은 적은 고통을, 다른 사람들은 많은 고통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 시편은 그들이 그 고통 가운데 압도당하지 않고, 오히려 믿음과 소망을 세우도록 기록된 것이다.²⁴

멜란히톤은 이런 시편의 내용에서 하나의 원리를 찾고 있다. 바로 다윗의 말이 그리스도의 말이며, 동시에 다윗의 말이 우리의 말이라는 것이다.²⁵ 시편의 저자인 다윗은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사람인 것과 동시에 교회의 지체된 성도들을 가리키는 사람이다. 물론 본문의 맥락에 따라 살피는 것이 당연하지만, 시편이 다윗이 경험을 나타내고 그의 개인적 교훈을 목격하는 문학 작품이 아니라는 점은 중요하다. 다윗은 어떤 부분에서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사람으로, 다른 부분에서 성도들을 가리키는 사람으로 시편에서 사용되고, 그런

aerumnis, et queritur suas esse maiores. ... tamen scit suas afflictiones et liberationes imagines esse afflictionum et victoriarum Christi, ”

²⁴ PK 42, CR 13, 1087. “sed haec non propter ipsum, sed propter nos scripta sunt. Habent et alii multi in Ecclesia ingentes dolores, alii magis, alii minus acres. Omnes autem discamus voluntatem Dei esse, ut in talibus doloribus non succumbamus, sed erigamus nos fide et spe.”

²⁵ PK 3, CR 13, 1022. “Haec regula in Psalmis observetur, ut sciamus saepe vocem Davidis, simul esse vocem Christi, et econtra vocem esse Davidis seu nostram vocem.”

원리로 성경을 읽고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 멜란히톤의 견해이다.

고난에서도 이 원리는 동일하게 적용된다.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고 부활하셨던 것처럼, 교회 또한 고난을 받고, 부활한다.²⁶ 다윗의 고난과 승리는 그리스도의 고난과 승리의 모형이다.²⁷ 이렇게 다윗의 고난과 승리는 그리스도의 고난과 승리와 연결된다. 여기에서 다윗이 사라져서는 안 된다. 그는 그리스도의 모형이며, 가장 슬픈 감성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가 처한 위험은 그에게 실제였다. 그리고 이는 조상인 아브라함, 야곱, 요셉이 경험한 자유와 살아남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에게도 주어질 것이 분명하다.²⁸

성도와 교회와 그리스도의 고난을 모두의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다만 분명한 순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²⁹ 그리스도의 고난이 더 근본적이다. 그리스도의 고난은 매우 특별한 기능을 하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갖는 열매는 하나님의 진노를 그의 순종으로 화해케 하는 것이다.³⁰ 다른 표현으로 멜란히톤은 시편 118:17의 해설에서 “내가 죽지 않고 살 것이다”를 죽음의 파괴로 이해하며, 메시아의 고난이 이 목적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한다. 즉 메시아는 교회의 기초가 되기 위해 고난을 받았다.³¹ 동시에 메시아는 자신이 고난을 받지만 보존될 것을 확실히 알았다. “고난 가운데 내가 부르짖었다. 그리고 주께서 나에게 깊은 가운데 응답하셨다.” 깊은 죽음은 의미한다. 이것으로 고난과 자유에 대한 증거가 되었다. 메시아는 교회의 모퉁이 돌이 되기 위해 세워졌다. 즉 그는 교회를 소유하신다. 그리고 그는 교회가 파괴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신다.³² 이렇게 멜란히톤에게 메시아의 고난은 항상 교회의 승리와

²⁶ PK 16, CR 13, 1041f.

²⁷ PK 18, CR 13, 1044.

²⁸ PK 22, CR 13, 1049; PK 59, CR 13, 1141.

²⁹ 멜란히톤은 그의 시편주석에서 메시아의 고난을 표현할 때는 ‘*passio*’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성도와 교회의 고난과 구분하여 사용한다. 참고. 류성민, 『교회의 가장 달콤한 노래 시편』, 189f.

³⁰ PK 30, CR 13, 1083. “Quia ira tua placata est mea obedientia”

³¹ PK 117/118, CR 13, 1184. “Sequeuntur versiculi exponunt causam finalem, propter quam passus est Messias, scilicet, ut fieret fundamentum Ecclesiae, propter suam reverentiam exauditus est etc.”

³² PK 117/118, 7, CR 13, 1185. “Messiam, qui hic profitetur se constitutum esse, ut sit caput anguli, id est, ut habeat Ecclesiam, quam non sinat interire.”

연결된다.

V. 교회의 고난의 원인

교회에 고난이 있는 것은 분명한 현실이다. 그렇다면 교회는 왜 고난을 당하는 것일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교회가 무엇인지, 하나님과 교회의 관계가 무엇인지를 생각한다면, 교회가 고난을 당하는 원인을 파악하는 것은 쉽지 않다. 특히 교회가 그리스도의 구원이라는 확실한 약속을 받은 의인들의 집단이라는 점에서 고난은 어려운 문제이다. 멜란히톤에게도 교회의 고난의 문제는 어려운 문제였다. 그는 이 문제를 사람이 알 수 없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야 알 수 있다는 입장을 가졌다. 그에 따르면 사람의 이성은 의인들이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지 알지 못한다. 복음의 교리만이 의인이 고난을 당하는 이유를 알려준다. 고난의 이유는 바로 부패한 본성에 붙어 있는 죄이다.³³

멜란히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철학자들은 고난의 중요한 이유를 사람 밖에 있는 요소들(*materia*)에서 찾는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고난의 원인은 사람의 본성에 있는 죄이다.³⁴ 하나님은 죄 때문에 전 세계를 처벌하신다. 예를 들어, 소돔, 이집트, 예루살렘, 바벨론, 로마가 그 이유로 파괴되었다. 하나님은 이런 예를 통해 불경건한 사람들을 처벌하신다는 것을 알려주신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참으로 죄에 분노하신다는 것을 알려주신다. 그러므로 인생의 고난은 사람의 죄 때문이다.

성도 안에도 여전히 죄가 존재한다. 그들은 율법을 만족시키지 못한다. 그래서 그들은 율법의 성취에 있어 의롭지 못하다. 더하여 여전히 내면에 악덕과 의심과 불신과 부주의함과 다른 악들이 가득하다. 이런 점에서 성도나 세상에 속한

³³ PK 37, CR 13, 1076. “nec philosophia ulla monstrat causas, sed sola Evangelii doctrina. Prima autem et praecipua causa est, peccatum quod in hac depravatione naturae adhuc haeret.”

³⁴ PK 32, CR 13, 1066. “Principalis causa calamitatum humanarum est, non, ut philosophi putant, materia, sed peccatum in natura hominum.”

사람들이나 별로 차이가 없다. 그러나 멜란히톤은 성도가 믿음을 통해서 위선자들(세상의 사람들)과 구분된다고 주장한다.³⁵ 멜란히톤은 고난의 원인이 여전히 성도들 가운데 남은 죄악에 원인이 있음을 분명히 한다. 그러나 그 의미가 성도의 고난이 죄에 대한 처벌을 가리키지 않는다.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의롭기 때문에 고난을 죄의 처벌이라고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그래서 멜란히톤은 은혜로운 용서의 교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죄로 말미암아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버림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죄 용서의 교훈은 성도의 영혼을 음부에서 다시 불러낸다. 하나님은 믿음을 통해 우리가 용서를 간구하도록 가르치신다.³⁶ 그런 의미에서 성도에게 고난은 죄로 인한 형벌적 목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 다시 하나님께 향하게 하는 교훈적 목적으로 존재한다.

다른 표현으로 말하자면, 부패한 본성의 죄가 고난의 원인이라는 것은 교회가 당하는 고난의 원인을 내부에서 찾는 것이 아니다. 멜란히톤은 교회가 세상 나라들처럼 우상이나, 압제나, 욕망에 의해 고난 받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고난은 하나님을 싫어한 마귀의 활동으로 발생하기 때문이다. 마귀는 불경건한 지도자들을 자극하여 교회 안에 날뛰도록 한다. 이런 방식으로 마귀가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을 없애려 시도할 때, 교회는 고통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참된 고백을 내놓는 방식으로 대응한다.³⁷ 이런 방식으로 교회는 모든 불경건한 이단과 압제자들의 분노를 당한다. 교회는 이에 대항하여 방어를 해야 한다. 그 방어의 수단은 학문(*studia*)과 가르침(*disciplinam*)이다. 멜란히톤은 교회의 바른 교리를 부수려는 세상의 시도가 교회의 고난의 원인임을 밝히고, 교회는 이런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 하나님의 바른 교훈을 열심히 지키고, 가르쳐야

³⁵ PK 32, CR 13, 1065. “discernens hypocritas et iustos fide.”

³⁶ PK 32, CR 13, 1066.

³⁷ 참고. PK 44, CR 13, 1090. “Non adfligitur Ecclesia, ut imperia mundi, propter idola, tyrannides, libidines. Nam haec sunt praecipuae causae cur mutantur, sed quia diabolus odit Deum, irritat impios principes, ut saeviant in Ecclesiam. Cum igitur diabolus conatur delere veram Dei noticiam, Ecclesia in suppliciis opponat veram confessionem, ita nostrae afflictiones fiunt testimonia doctrinae et sacrificia Deo grata.”

한다고 주장한다.³⁸ 이런 진술들을 통해 볼 때, 멜란히톤은 자신의 교회가 당하는 고난을 바로 마귀의 흥분된 행동이라고 이해한다. 이에 대해 교회는 차분하게 하나님을 믿고, 그의 보호하심을 신뢰하는 믿음을 내놓아야 한다.

경건한 사람들과 불경건한 사람들 모두 죽음에 의해 놀려있고, 그 때문에 끔찍한 환란으로 괴롭힘을 당한다. 예를 들어 시편 32편의 저자는 뼈가 녹는 아픔을 경험할 정도로, 두려움과 슬픔 속에서 거의 죽는 것 같았다고 고백한다.³⁹ 다만 불경건한 사람들은 억압되어 영원한 사망으로 파멸한다. 그들이 이렇게 된 원인은 그들이 죄 용서를 듣고자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반대로 죄 용서를 구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죄로 인해 죽음과 비참에 던져졌음을 알고 있다. 그러나 이 형벌과 같은 고난으로 인해 하나님께 버림을 받지 않을 것을 안다. 그래서 그들은 고난을 견디고, 용서를 구한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간구를 들으실 것이고, 자신이 도움을 받아, 자유가 계획되었음을 안다.⁴⁰

더하여 이생의 고난은 죄와 마귀라는 원인보다 더 궁극적인 원인을 가지고 있다.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다.⁴¹ 하나님께서 의로운 사람에게 선으로 대하시기를 원하신다는 말이 있다. 멜란히톤은 이 말에 대해 아벨과 예레미야를 언급하며 설명한다. 그들은 의인이기 때문에 선한 대우를 받을 것이다. 그들은 분명히 영원한 생명에서 선한 대우를 받을 것이다. 그러나 이생에서 그들은 고난 가운데 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에 있는 것이다. 하나님은 특별히 교회 안에서 죄가 알려지고, 인류의 끔찍한 타락이 알려지기를 원하셨다. 그래서 전체 교회는 고난에 던져졌다.⁴² 그렇게 교회의 고난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것이다.

³⁸ PK 28, CR 13, 1060.

³⁹ PK 32, CR 13, 1065.

⁴⁰ PK 32; CR 13, 1066. "Utrique pii et impii morte onerati sunt, et horrendis calamitatibus excruciantur. Sed impii succumbunt ac ruunt in aeternum exitium, quia nolunt audire remissionem peccatorum: Econtra vero¹⁸⁶ petentes remissionem peccatorum, sciunt se propter peccatum subiectos esse morti et aliis miseriis, sed tamen non abiici a Deo propter has poenas. Sustinent igitur aerumnas et petunt remissionem, et sciunt se vere exaudiri a Deo, et iuari, et tandem liberationem propositam esse."

⁴¹ PK 49, CR 13, 1104. "certa causa est consilii divini,"

⁴² PK 49, CR 13, 1104. "Vult autem Deus praesertim in Ecclesia, agnosci peccatum et horrendam totius generis humani corruptionem. Ideo tota Ecclesia subiecta est

고난의 원인을 어느 정도 인식한다고 하더라도 고난 자체는 성도에게 매우 현실적이다. 달리 말하면 고난은 성도를 매우 아프게 하고 슬프게 한다. 이는 시편에 자주 등장하는 정서이다. 멜란히톤은 시편 51편을 큰 고통 가운데 슬퍼하는 사람들의 고백이라고 평가한다. 이 안에 담긴 슬픈 탄식은 사실 자신의 죄가 크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그러나 이는 성도들에게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자비와 연결되고, 감사와 예배로 이어지게 된다.⁴³ 특히 복음은 세상의 지혜로운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고난의 이유를 알려주고 더하여 참된 위로를 보여준다.⁴⁴

이생에서 사람들이 변성하더라도 죽음 이후에 그들은 영원한 사망으로 멸망한다. 그곳에서는 어떤 권력도, 어떤 사람의 보호도 구할 수 없다. 그러나 반대로 경건한 사람들은 지금 큰 환란 가운데 있더라도, 그 죽음에서 자유롭게 될 것이다. 하나님으로 인해 영원한 교회의 동거 가운데 영원한 선으로 생명과 지혜와 의와 기쁨으로 장식될 것이다.⁴⁵

VI. 고난은 성도들에게 주는 효과

1. 성도들을 향한 고난의 교훈적 의미

고난은 당하는 사람들에게 매우 큰 고통을 안겨준다. 이는 두 가지 반응을 가져온다. 사울과 유다와 같은 많은 불경건한 사람들은 고난에 굴복하여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 그러나 다윗과 히스기야와 같은 경건한 사람들은 오히려 이 고통을 견디고, 죄 용서의 약속을 붙잡는다.⁴⁶ 특별히 경건한 사람들은 십자가에서 도움에 대한 위로를 얻는다. 이는 큰 고통 가운데 참된 구원, 즉 영원한 생명을 맞보고 시작하는 경험을 의미한다. 이 교훈은 세상의 철학자들과 이성애

aerumnis.”

⁴³ PK 51, CR 13, 1113.

⁴⁴ PK 28, CR 13, 1060.

⁴⁵ PK 49, CR 13, 1105.

⁴⁶ PK 28, CR 13, 1059.

게 알려져 있지 않은 것이고, 오직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사람들에게 발생하는 것이다.⁴⁷

시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호의에 대한 감사와 찬양을 발견한다.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자유를 베푸시고, 이러한 성경의 예를 통해 성도들이 고통 가운데 연약해지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의 계획에 따른 자유를 구하고 기대하도록 하신다.⁴⁸

그런 의미에서 성도들에게 고난과 고통은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확대적 의미가 아니라, 성도들을 자극하여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는 긍정적 의미를 갖는다. 다만 성도들이 이생에서 여전히 본성에 죄를 완전히 제거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도들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를 느끼며, 절망과 싸운다. 자신의 죄의 크기와 부끄러움을 생각할 때, 감히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한다. 그래서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중보자로 인해 자신을 받으셨다는 위로를 받아들이지 못한다. 그저 이 경험은 그들에게 사자가 온 뼈를 부수는 것 같은 고통일 뿐이다.⁴⁹ 멜란히톤의 이런 설명은 죄의 고통이 결코 가볍지 않음을 알려준다. 회개는 쉬운 일이 아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길에 떨어진 동전 줌의 것과 같이 쉬운 일이 아니다.

멜란히톤은 시편 4편의 저자가 매우 당황스러운 상황에 놓였다고 설명한다. 교회는 재앙과 십자가 아래 처하게 되었고, 이것은 교회가 하나님께 버려졌다는 증거인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교회는 이방인들보다 더 불행한 상태였고, 이런 상태라면 하나님에 대한 전체 교훈이 헛된 것 같았다. 다윗은 이에 대해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강력한 고난을 견딜 수 있도록 대답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우리의 경험이 잔인하게 보일지라도, 우리는 놀라운 방식으로 자유롭게 될 것이다. 둘째, 내적 위로를 통해 우리의 마음을 강화시켜 주신다. 이를 통해 강력한 고난들을 견딜 수 있도록 하신다.⁵⁰

성도들 가운데 고난 중에도 교회를 위한 선한 일을 행한 사람들이 있다.

47 PK 32, CR 13, 1065.

48 PK 52, CR 13, 1122.

49 PK 32z, CR 13, 1235.

50 PK 4, CR 13, 1023.

멜란히톤은 그 예로 출애굽기 1장의 조산사, 열왕기상 18장의 오바다를 언급한다. 그리고 더하여 콘스탄티누스(Constantinus)가 교회를 막센티우스(Maxentius)와 리키니우스(Licinius)로부터 보호한 사건을 언급한다. 그리고 그의 시대에 다른 경건한 지도자들이 교황의 분노와 왕의 군대들의 잔인함을 돕기를 원치 않는다고 지적한다. 이 시편은 이런 사람들에게 매우 달콤한 위로를 제시한다.⁵¹ 경건한 사람들은 고난을 통해 고통을 경험한다. 그러나 그것은 그들에게 도움이 된다. 시편이 가르치는 바는 순결한 사람들에게는 고난 중에도 도움이 있다는 것이다.⁵² 경건한 사람이 지금은 억눌려져 있을지라도 그 악한 날에 주님은 그를 자유롭게 하실 것이다. 이것은 시편에 덧붙여진 약속이다.

우리가 큰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는 분으로, 우리의 고난을 가볍게 하실 것이며, 결국 우리의 구원을 확실하게 한다. 우리의 믿음은 이러한 예를 통해 우리에게 구원을 적용하기 위해, 위로를 기도해야 한다고 경고한다. 이를 통해 우리는 영원한 대적자들에 의해 억눌리지 않고, 이생에서 그리고 내생에서도 영원한 죽음에 던져지지 않을 것이다. 영원한 생명 가운데 찬양할 것이다.⁵³ 고난의 시간은 짧지만, 그 후에 영원한 위로가 있다.⁵⁴

2. 성도를 부르짖음과 간구로 이끄는 고난

성도는 시편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듣는다. 그리고 그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것을 요구받는다.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부르짖음과 간구를 가리킨다. 즉 약속에는 믿음과 간구가 더해져야 한다. 이를 통해 우리의 간구가 응답되고, 받아들여지며,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도움을 받고, 보호받는다는 것을 우리의 영혼은 참으로 알게 된다. 이런 방식으로 고난은 믿음과 간구와 연결되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된다.⁵⁵ 멜란히톤은 시편 21편의 해설에서

⁵¹ PK 41, CR 13, 1083f. "Talibus hic Psalmus dulcissimam consolationem proponit"

⁵² PK 41, CR 13, 1084. "Econtra vero Psalmus docet opitulandum esse innocentibus in calamitate."

⁵³ PK 27, CR 13, 1070.

⁵⁴ PK 30, CR 13, 1063. "Significat breve esse tempus afflictionis, sed postea consolationem aeternam."

시편이 성도들의 정신을 견고하게 하는 것을 목적한다고 설명한다. 이를 통해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모든 일하심 가운데, 구체적으로는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도록 한다.⁵⁶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경건한 이성은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무시를 받아 버려졌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교회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난에 다른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려준다. 즉, 우리가 회개로 다시 돌아오고, 믿음이 강화되고, 교리의 증거를 소유하도록 하기 위함이다.⁵⁷

이렇게 고난 가운데 성도가 부르짖는 내용은 고통의 경감이다. 위기와 고난에 처한 사람들은 모두 도움을 요청한다. 다만 성도들의 간구는 이방인의 간구와 결과에 있어 분명한 차이가 있다. 성도들은 다윗이 자유롭게 되는 예를 통해 약속의 증거를 소유한다. 그리고 그 예와 같이 성도의 간구는 응답되어 형벌이 경감되고, 자유를 얻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이렇게 간구하는 사람들에게 가까이 계신다.⁵⁸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를 기대한다. 즉 죄의 용서와 화해와 영원한 생명과 교회의 보존과 우리 국가의 보존을 기대한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에게 약속된 메시아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것이다. 이로 인하여 또한 우리는 고난의 경감을 구하고 기대한다.⁵⁹

3.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으로서 부르짖음

고난 가운데 교회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에 근거한다. 이 명령으로 교회는 사라지지 않으며, 믿음으로 견디고 보호를 경험하

⁵⁵ PK 11, CR 13, 1035.

⁵⁶ PK 21, CR 13, 1048.

⁵⁷ PK 51, CR 13, 1118. "Ratio, cum in calamitatibus sumus, iudicat nos negligi et proiici a Deo. Sed vox divina in Ecclesia docet, afflictionum alias esse causas, videlicet ut revocemur ad poenitentiam, aut confirmemur, aut sint testimonia doctrinae."

⁵⁸ PK 4, CR 13, 1024.

⁵⁹ PK 48, 8 CR 13, 1102. "Expectamus misericordiam tuam, id est, remissionis peccatorum, reconciliationem et vitam aeternam, conservationem Ecclesiae et huius nostrae politiae, propter Mediatorem quem nobis promisisti. Propter hunc etiam mitigationem communium aerumnarum petimus et expectamus."

게 된다. 교회의 교훈은 그래서 은밀하고 놀라운 것이다. 달리 말하면 진실하고 효과적인 것이다. 이것은 세상의 지혜자들의 교훈과 다르다. 교회는 세상 지도자들의 지혜를 가르치지 않는다. 다만 십자가의 어리석음을 가르칠 뿐이다.⁶⁰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 약속을 주셨다. 이 약속은 경건한 사람에게 보호를 보장하고, 불경건한 사람들에게 징벌로 위협한다.⁶¹ 그리고 약속은 우선 위로로 주어진다. 멜란히톤은 시편 112편을 해설하면서 이 시편이 교회와 경건한 사람의 위로라고 설명한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고난으로 약하게 되고, 하나님께 낙담한다. 그러나 위로는 가장 달콤한 약속들을 가지고 있다. 현재와 영원한 선한 것들에 대한 약속을 가지고 있다. 바로 이 위로는 교회의 약함과 낙담을 막아준다.⁶²

성도에게 주어지는 약속은 시간적 구분으로 영원한 약속과 이생의 약속으로 분류된다. 우선 영원한 약속이 있다. 교회는 원칙적으로 영원한 좋은 것을 위해 부름 받았다. 이 약속은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확실하고 견고하다. 육적인 좋은 것이 있든지 없든지 말이다. 다윗은 회개를 행하고, 죄의 용서를 믿고, 또한 확실히 자신이 영생의 상속자라는 것을 세워야 한다.⁶³

더하여 현재의 좋은 것들에 대한 약속이 있다. 왜냐하면 교회는 이생에서 모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육적인 좋은 것이 필요하다. 다만 현재의 좋은 것들의 약속에는 십자가와 고난의 예외가 더해진다.⁶⁴ 그런 이유에서 육적인 좋은 것들이 각 개인에게 같은 방식으로 나누어지지 않는다. 다만 하나님은 교회가 십자가에 순복하기를 원하신다. 그렇지만 육적인 좋은 것들의 약속이 쓸모없는

⁶⁰ PK 119 pe, 1 CR 13, 1198. “Docemus sapientiam non principum mundi, sed stultitiam crucis.”

⁶¹ PK 11, CR 13, 1035. “quae defensionem piis pollicentur, et minitantur poenas impiis.”

⁶² PK 112, CR 13, 1172. “Hic Psalmus consolatio est Ecclesiae et piorum adversus scandalum crucis. Quia enim multi aerumnis Ecclesiae franguntur, et deficiunt a Deo, opponitur hic consolatio continens dulcissimas promissiones praesentium et aeternorum bonorum”

⁶³ PK 112, CR 13, 1172.

⁶⁴ PK 112, CR 13, 1173. “Aliae autem sunt promissiones bonorum praesentium. Quia enim in hac vita colligitur Ecclesia, opus est etiam bonis corporalibus, ... sed addita est promissionibus bonorum praesentium exceptio crucis et castigationis.”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항상 세상의 어떤 모임보다 교회를 뛰어나게 보신다. 그래서 이생의 육적 약속은 교회에 유익이 된다. 교회는 이 약속에 근거한 믿음과 부르짖음을 통해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갖지 않고, 더하여 당하는 처벌과 같은 고난 가운데 고통의 경감을 주실 것을 의심하지 않는다.⁶⁵ 그러므로 교회는 이생에서 선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교회는 확실하게 언제나 이생에서 보존된다.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들에게 고난을 경감 시키신다. 그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보호를 기대하기를 원하신다. 세상의 불경건한 사람들은 가시적이고 확실한 도움을 갖는 것을 원하지만, 교회는 그런 가시적 도움으로 보호되기를 원하지 않는다.⁶⁶ 하나님께서 자신의 약속으로 보존과 경감을 약속하시기 때문이다.

Ⅶ. 결론

사람은 죄와 죽음으로 고통이 가득한 삶을 살아가는 피조물이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자기에게 받아들이시는 엄청난 호의를 베푸시는데, 그것은 구체적으로 죄와 죽음을 파괴하고, 우리에게 의와 영원한 생명을 회복시키시는 것이다.⁶⁷ 하나님께서 교회에 베푸시는 은혜는 이처럼 엄청난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교회의 구성원들 가운데 고통과 다툼과 간구들이 여전히 있다.⁶⁸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가 살아가는 현실이다.

교회가 이생에서 경험하는 것은 온갖 고난이다. 이 고난은 개인의 일상적 삶의 경험을 지칭하지 않는다. 오히려 교회의 구성원으로서 세상이 대적하는 대상인 교회 전체로 경험하는 고난을 가리킨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통해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 알게 하신다. 그리고 이 고난은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의 고난과 연결되고, 그리스도께서 경험하신 승리를 교회의 승리로 받아 자연스럽게

⁶⁵ PK 112, CR 13, 1173.

⁶⁶ PK 112, CR 13, 1173.

⁶⁷ PK 8, CR 13, 1031.

⁶⁸ PK 3, CR 13, 1021.

게 승리를 확신하게 이르게 된다.

멜란히톤은 자신과 교회가 처한 비극적 현실에서도 시편을 통해 위로를 찾고 더 간절하게 구원을 간구했다. 멜란히톤에게 고난은 현실의 문제였고, 성도의 문제요, 교회의 문제였다. 개인의 정서적 삶에 영향을 끼치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이생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 있는 것이고, 이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기를 원하셨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가며, 하나님께 위로와 고통의 경감을 간구하도록 하시고, 궁극적 구원을 위해 부르짖도록 하시는 계획을 가지셨다. 시편이 그 증거였다.

멜란히톤은 교회의 고난이라는 현장에서 그냥 무기력하게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위기의 상황에도 학생들을 불러 모아 대학을 다시 열었다. 그들에게 성경을 강의함으로써 그들에게 이 역사적 현실적 상황에 대한 신학적 평가를 내리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알리고자 했다. 대학은 특히 목회자 후보생을 키우는 기관이다. 교회의 고난 가운데 이 고난을 극복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기능이 바로 말씀의 사역자와 관계된 것이다. 교회의 말씀 전파의 직임을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그것이다. 어떤 의미에서 멜란히톤은 교회를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고자 한 것이다.

멜란히톤은 목회자 후보생들에게 성경의 진실한 의미를 가르쳤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이 위기의 순간에 교회가 할 일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렸다. 한국 교회도 위기라고 한다. 교회는 세속화되었고, 사회는 반기독교적 정서가 팽배하다. 젊은이들은 개인주의와 물질주의로 교육받았고, 그렇게 영원한 생명에 관심이 없다. 교회는 세상에 대한 영향력에 관심이 있지만, 그것은 다만 부정적인 결과로 드러나고 있다.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줄어들고 있을 뿐 아니라, 교회의 영적 윤리적 영향력도 사라지고 있는 형편이다. 16세기 중반의 교회는 전쟁이라는 물리적인 적극적 반대를 통해 개신교회를 없애려는 엄청난 물리적 고난을 경험했다. 이와 달리 21세기 한국교회를 향한 마귀를 비롯한 대적들의 공격은 정신적이고, 사회적이다.

그러나 항상 그렇듯이 교회가 이런 공격에 대해 취해야 할 일은 16세기나

21세기나 다르지 않다. 고통이 크고 그로 인해 아픔이 있더라도, 고난을 없애거나 피하려는 시도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 일을 허락하셨는 가라는 본질적인 부분에 집중해야 한다. 교회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신뢰해야 한다. 멜란히톤이 고난 받는 교회를 위해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 구원성들에게, 특별히 목회자와 후보생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그들로 하여금 다른 성도들을 가르치도록 해야 한다. 하나님의 바른 진리가 보존되고, 그것이 실효적으로 전파되어 적용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 멜란히톤의 사역은 교회와 목회자 후보생 양성기관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준다. 결국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기관의 보존을 통해 사라지지 않고, 지속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신다. 비록 위기는 있지만, 그래서 타격도 받고, 아픔도 경험하지만, 교회는 살아남을 것이고, 하나님의 위로와 고통의 경감을 경험할 것이다. 다만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 말씀의 사역자들에게 주어진 임무는 분명하다. 더하여 사역자를 길러내는 기관들을 향한 메시지 또한 분명하다. 우리는 보존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더욱 진실하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보존하고 전해야 한다. 시편이 멜란히톤에게 주는 교훈이 이것이었고, 이 교훈은 21세기 한국 교회의 고난을 경험하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하다.

[참고문헌]

- Kirchner, Hubert und Haendler, Gert. *Reformationsgeschichte von 1532 - 1555/1566. Festigung der Reformation, Calvin, katholische Reform und Konzil von Trient*. Berlin: Evang. Verl.-Anst. 1987. (Spätes Mittelalter, Reformation, konfessionelles Zeitalter, 6)
- Mahlmann, Theodor. "Melanchthon als Vorläufer des Wittenberger Kryptocalvinismus." In Frank, Günter und Selderhuis, Herman J. hg. *Melanchthon und der Calvinismus*. Stuttgart-Bad Cannstatt: frommann-holzboog, 2005: 173-230. (Melanchthon-Schriften der Stadt Bretten, 9)
- Melanchthon, Philipp. *Philippi Melancthons opera quae supersunt omnia*, hg. v. Carl Gottlieb Bretschneider und Heinrich Ernst Bindseil, 28 Bde. Halle und Braunschweig 1834-1869 (Corpus Reformatorum 1-28). = CR
- _____. *Melancthons Briefwechsel. Kritische und kommentierte Gesamtausgabe*, im Auftrag der Heidelberger Akademie der Wissenschaften hg. v. Heinz Scheible u.a., Stuttgart-Bad Cannstatt 1977-. = MBW
- Dingel, Irene. 류성민 역. 『종교개혁, 인물과 중심지를 따라 읽다』. 서울: 영음사, 2022.
- Scheible, Heinz. *Melanchthon. Vermittler der Reformation: eine Biographie*. Neuausgabe, umfassend bearbeitet und erweitert. München: C.H. Beck, 2016.
- Sæbø, Magne ed., *HBOT. I/1: Antiquity*. Göttingen: V&R, 1996.
- _____. ed., *HBOT. I/2: The Middle Ages*. Göttingen: V&R, 2000.
- 류성민. 『교회의 가장 달콤한 노래 시편. 멜란히톤의 시편 주석의 주해와 신학』. 부산: 개혁주의학술원, 2023.
- _____. "바빙크의 멜란히톤 이해에 대한 비판적 고찰." 『한국개혁신학』 2017(56), 119-146.

안인섭. “팔츠(Pfalz)의 개혁파 종교개혁의 발전(1558-1561): 멜란히톤과 칼빈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한국개혁신학』 2021(71), 227-268.

이남규. 『우르시누스&올레비아누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서의 두 거장』. 서울: 익투스 2017.

[Abstract]**Psalms and Suffering of the saints: Focused on the psalm-commentary of Melanchthon**

Seong Min Ryu

(Hapdong Theological Seminary, Adjunct Professor, Systematic Theology)

The reformers were very interested in the actual work of the church. This can be seen in the problem of suffering revealed in the psalms. Melanchthon's Psalm commentary also deals well with the problem of suffering of the saints. Melanchthon finds the suffering church and the preserving God in the psalms. This is amid the historical background in which the Protestant camp was defeated in the Schmalkalden War. In the midst of a real crisis in which the Protestant Church could disappear, Melanchthon found and delivered God's message of suffering through the psalms. The church belongs to God, but the actual suffering that the church faces is quite great. In particular, Melanchthon finds the suffering of the church in the psalms. One of the causes is the sin of the saints. And the church's defense measures are academics and teaching. The ultimate cause is God's plan. God wants the church to know sin through this. Suffering does not exist to get rid of the church, but rather has a didactic meaning for repentance. Suffering leads to calling and prayer for the saints, and God responds to the church's prayers. Even if the church experiences great suffering, it must trust God. Melanchthon says this is a lesson from the psalms.

Key Words: Melanchthon, Wittenberg, Schmalkalden war, Suffering of church, Psalms, Prayer

